

메시지 3

열두 가지 주요 항목을 보고 체험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돌봄

성경: 요 17:11, 17, 21-23, 엡 4:3-6

I.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—엡 4:3-4.

- A.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의 몸이 있다는 진리에 근거를 둔다—고전 12:12-13, 20, 엡 1:23, 4:4, 16.
- B.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—엡 4:3, 요 17:11, 21-22.
- C.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—엡 4:3.
 1. 그 영의 하나를 지키려면 우리는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—롬 6:6, 마 16:24.
 2. 그 영의 하나를 지키려면 육체, 자아, ‘내’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한다—갈 2:20, 5:24.

II.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한 몸은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—엡 4:4, 계 1:4, 11.

- A.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한 지방에서 표현된 것이다—마 16:18, 18:17, 고전 1:2, 10:32하, 12:12-13, 20, 27.
- B. 우주적인 한 교회, 곧 그리스도의 몸이 많은 지방 교회,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 된다—롬 12:4-5, 16:16하.
- C. 각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몸의 일부이며, 이 몸의 지방적인 표현이다—고전 1:2, 12:27.

III. 교회의 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조성된다.

- A. 교회의 터의 첫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, 곧 ‘그 영의 하나’이다—엡 4:3-4.
- B.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한 지방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이다—행 14:23, 딤후 1:5, 계 1:11.
- C.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하나의 영의 실재이고, 하나의 영의 실재는 한 지방 교회로서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표현한다—요일 5:6, 요 16:13.
 1.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신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실지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 된다.
 2. 이 영을 통해 교회의 터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된다.

IV. 하나의 터는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—요 17:21-22, 고후 13:13, 엡 3:14-17상, 4:4-6.

- A.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사실상 유기적이고 살아 계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—엡 1:3-14, 22-23, 3:14-17상, 4:4-6.
 1.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네 인격, 곧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됨을 계시한다.
 2. 교회는 삼일 하나님께서 구속된 사람들과 연합하시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금등잔대가 되신 것이다—계 1:20.

- B.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적용되어 산출된 하나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다—요 17:21-22, 고후 13:13.
- C.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안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존재에 적용되신 것과 관련된다—엡 3:14-17상.

V. 하나의 본질은 생명과 빛이다—요 8:12, 10:10, 11:25.

- A. 하나는 생명 안에 있고, 빛과 함께하며, 합당한 터 위에 있다—시 36:8-9.
- B. 아버지의 이름은 생명의 문제이고, 아버지의 진리는 빛의 문제이다—요 17:11, 17.
 - 1. 생명이 없으면 하나가 있을 수 없다(겔 37:1-14). 하나는 오직 생명에 의해, 생명 안에서, 생명과 함께 유지될 수 있다—창 2:9, 계 22:1-2.
 - 2. 분열적인 성향과 분열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—창 3:1-6, 11:1-9.
 - 3. 빛은 하나를 보존하고 무질서를 몰아낸다—계 21:23.
- C. 빛과 생명과 하나는 함께하며 하나의 순환을 이룬다. 빛이 많을수록 생명이 더욱 많고, 생명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가 되며, 하나가 될수록 빛이 더욱 많다.
- D.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생명 안에 있어야 하고 빛 비춤 아래 있어야 한다(요일 1:1-5). 빛 비춤과 생명의 적심과 공급에 의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—계 21:23, 22:1-2.

VI. 한 교회가 진정한 지방 교회인지를 점검하는 여섯 가지 시험이 있다—계 1:4, 11.

- A. 진정한 지방 교회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다—계 3:8.
- B. 진정한 지방 교회에는 특별한 가르침이나 실행이 없다—행 2:42.
- C. 진정한 지방 교회에는 특별한 교통신이 없다—고전 1:9.
- D. 진정한 지방 교회에는 분리된 행정이 없다.
- E. 진정한 지방 교회에는 다른 조직들과의 숨겨진 연결이 없다.
- F. 진정한 지방 교회는 기꺼이 모든 지방 교회와 교통신을 갖는다—고전 10:16-17, 16:19, 살전 2:14, 계 1:4, 2:7상.

VII.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손상시키는 것이 구약에 묘사되어 있다.

- A.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과 교통신하기 위하여 다른 단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.
- B. 산당들의 의미는 분열이며, 무언가를 높이는 것을 내포한다—왕상 11:6-8, 13:33-34, 14:22-24, 15:14, 34, 22:43.
 - 1. 원칙적으로 모든 '산당', 곧 모든 분열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과 관련된다—고전 1:10-13.
 - 2.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'산당'도 있어서는 안 된다. 반대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수준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—골 1:18, 3:10-11.
- C. 여로보암의 변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땅에 경배를 위한 중심지를 유일하게 하나만 두신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뜨렸다—왕상 12:25-33.

VIII. 진리는 하나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—요 17:17.

- A. 진리는 거룩하게 하며, 거룩하게 함은 하나라는 결과를 가져온다—요 17:21-22.
- B.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,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—요 17:11, 14-17, 21-26.
- C. 분열의 네 요인, 곧 세상적임, 야심, 자신을 높임, 의견과 관념들은 오직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서만 처리될 수 있다—요 17:17.

IX. 진정한 하나는 ‘악’과 대립된다—요 17:15-17, 21-23.

- A. 세상은 그 속에 악, 곧 사탄이 있는 사탄적인 체계이다. 사탄과 세상은 한 실체이다—요 17:14-16.
- B. 악(요 17:15)은 야심, 자기를 높임, 의견과 관념들이 있는 세상이며, 이 모든 것은 분열을 낳는다.
- C. 삼일 하나님 안에는 야심이 없고,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없으며,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 안에는 의견과 관념이 없다—요 17:21-23.

X.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우리는 몸 안에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—고전 12:18, 고후 10:13.

- A. 하나님은 몸 안에 명확한 안배를 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다—고전 12:28.
 - 1. 우리는 몸의 질서, 곧 하나님께서 몸 안에 정하신 안배를 알아야 한다.
 - 2. 모든 지체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—고전 11:34하, 14:33, 40, 골 2:5.
- B. 몸 안의 질서는 성장과 사역에 필수적인 것이다. 불법은 몸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—엡 4:16, 요일 3:4.
- C.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분량에 제한받아야 한다.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넘어설 때 우리는 몸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—고후 10:13.
- D. 우리는 서로 복종하여 몸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것이다—엡 5:21, 행 1:14, 2:46, 롬 15:6.

XI.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한 일, 곧 한 몸의 일만이 있어야 한다—엡 4:12, 고전 15:58, 16:10.

- A. 우리는 반드시 모두 몸을 보아야 하고 몸의 일을 해야 한다—엡 1:22-23, 4:12.
- B. 모든 동역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일을 해야 한다—롬 12:4-5, 고전 12:12-13, 24-27, 엡 4:12.
- C. 일의 지역이 교회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—갈 2:7-8.
- D. “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하나를 볼 때마다, 그들은 또한 일의 하나를 볼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일에서 몸의 일로 구출될 것이다.”—워치만 니 전집, 제37권, 영문판 244쪽.

XII.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키려면 우리는 함께 섞여야 한다—고전 12:24.

- A. ‘섞이다’라는 말은 조절되고, 조화되고, 고르게 되고,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, 차이점들을 잃는 것을 내포한다.
- B. 섞임은 우리가 십자가로 제해지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여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을 요구한다—마 16:24, 롬 8:4, 갈 5:16, 24-25, 엡 3:8, 4:12, 16.
- C. 우리에게서 몸의 모든 지체의 섞임과 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섞임과 모든 동역자의 섞임과 모든 장로의 섞임이 있어야 한다.
- D. 이러한 섞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여, 하나님의 큰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—엡 1:9-10, 23, 3:8-10, 계 21:2.